

장시

통 일 의 래 양 으 로 영 원 하 시 리

김 태 룡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간절해지는 수령님  
꽃이 피어 만발한 이 봄날은  
아, 그리움의 4월  
그리움의 봄

누구나 수령님을 그리고그리며  
생각도 깊은 4월이지만  
그 누구보다 수령님생각  
더더욱 사무치실 우리 원수님

간절하신 그 마음으로  
한송이한송이 피워오신 꽃  
여기 금수산태양궁전 수령님  
앞에  
경모의 꽃바구니로 드리셨나니

아름답게 피어난 꽃송이꽃송이...  
있있에 타는듯 어리여있는  
원수님의 뜨거운 진정  
내 감히 붓을 잡고 들어서노라  
그이의 깊은신 심층속에

수령님 조국통일문제에  
생애의 마지막헌혈을 남기신  
20푼이 되는 류다른 이해의 봄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여  
오신  
수령님생각 얼마나 간절하시라

통일, 통일때문에  
자신의 머리가 회여진다고  
조국이 통일되면  
10년은 젊어질것 같다 하시던  
수령님  
원수님 못 잊으시는 그 말씀이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여  
수령님 우러르실 때마다  
원수님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신  
수령님의 그 흰서리흰서리

세월을 거스룰수 없는데  
사람의 인생이여서  
백발은 어쩔수 없는것이랴  
했어도  
분렬된 조국 갈라진 겨레를  
한생 아프게 안고 사시노라

매일씩 흰서리를 얹으신 수령님  
가물든 남녘의 대지 눈가에  
어려와  
드셨던 수저마저 놓으신 날도  
있어라  
재해를 당한 동포들을 생각하  
시며  
뜬눈으로 꼬박 지새신 밤도 있  
어라

온 나라 인민이  
축원의 인사를 드리는  
4월의 봄명절 탄생일조차  
남녘의 겨레가 정말 보고싶다  
시며  
마 음 속 아 품 을 떨 지 못 하 신  
수령님

새 공장 새 거리가 일떠설 때면  
그 기쁨 남녘의 동포들과  
함께 나누고싶으신 심정  
절절하신 그 소망을  
수령님은 언제한번 잊고사신적  
없었어라

그래서였던가  
수령님을 찾아오는 남녘과  
해외의 인사들  
그들을 만나실 때면  
그처럼 친근하게 맞아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신것은

그리운 동포들을 다 안으시듯  
넓은 품에 안아주신 그 많은  
사람들  
부어주신 사랑 베푸신 은혜  
이 봄날의 천만꽃에 비기랴  
저 푸른 봄하늘에 비기랴

태양궁전의 문을 열고 들어서도  
궁전광장의 공원길을 걸어도  
동포들을 반겨 맞아주시던  
수령님 태양의 그 영상이  
눈부시게 안기여 오거니

수령님을 생각하시며  
한자욱한자욱...  
원수님 깊은 추억을 엮어 읊기

시던  
그 숨연한 걸음걸음을  
내 경건히 따라서노라  
  
궁전에 들어서시여  
수령님 계시는 곳까지  
그 길은 비록 길지는 않았어도  
수령님 통일의 한생  
그 못 잊을 해와 달을  
원수님은 마음속에 다 걸어보지  
않으셨던가

북도의 벽면에 모셔진 수령님  
영상을  
오실적마다 비움은 모습이건만  
불수록 가슴껏게 안겨오는 영상  
한상한상 보고보시며  
마음속격정 크셨을 원수님

수령님 서계시는 푸른 논밭은  
가물든 남녘을 걱정하시며  
오래도록 떠나지 못하신 그  
논밭은 아닌가  
깊은 밤 어둠을 헤쳐가시는  
모습은  
멀리 분계연선마을로 떠나시던  
그 밤의 모습이 아니던가

소중한 영상 그 한상한상은  
그대로 수령님의 통일한생  
언제한번 멈추신적 없이  
낮이나 밤이나 비오나 눈이 오나  
헤치신  
수령님 통일헌신의 그 자욱자욱

해방의 첫 기술에서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걸고걸으신 통일의 길  
한생의 그 어느 하루도  
아니 걸으신적 없으셨나니

사람들이여  
이 땅 어디든 그대들 서보라  
겨레의 숙원 통일을 이루시려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수령님 헌신의 그 자욱자욱이  
있다

통일을 이룰수만 있다면

이런 험한 길 이런 밤길을  
천리든 만리든 가겠다 하시며  
위임없이 걸으신 그 길에  
새겨진 뜻깊은 사연 얼마이던가  
  
분계연선의 자그마한 마을  
가족과 생리별을 당한 녀인의  
가슴에서  
설음과 울분을 가져주시며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신 그 사랑

북방의 철의 기지  
남녘에 고향을 둔 노동자를  
만나시여  
일을 잘하라고  
통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  
라고  
믿어주고 내세워주신 그 믿음

그렇게 사랑과 믿음을 주시며  
80고령의 년세에도  
수령님 위임없이 걸으신 통일  
의 길  
겨레여, 그렇게 수령님은 통일  
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  
시었어라

수령님의 그 헌신 그 심혈을  
가슴에 꼭꼭게 새겨보시며  
수령님령전에 이르신 원수님  
생각깊이 이리신 걸음  
여기에 멈춰서시는가

수령님!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이루고야말겠습니까

그 맹세 그 신념을 안으시고  
수령님 걸어오신 통일의 길  
장군님 이어오신 통일의 길  
그 길에 거룩한 자욱 이어 새기  
시는 원수님  
금수산태양궁전에 찍으신 그리  
움의 자욱  
관문점에도 남기시었어라

관문점에 솟아 빛나는 수령님

의 친필비  
한글자한글자 주의깊게 바라  
보시며  
그토록 깊은 감회에 젖으시여  
수령님의 통일업적  
뜨겁게 회고하시었어라

추억깊이 하시는 말씀  
생의 마지막박동까지 통일에  
바치신  
수령님의 그 위대한 숨결을  
한가슴에 깊이 새겨보시며  
친필비를 우러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통일은 바야흐로 다가왔다고  
그처럼 기쁨에 겨워하시며  
한자한자 수령님 새기신 친필  
그 붓이 아니었디나  
겨레가 살길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시며  
불멸의 통일대강을 세나가시던

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뜨거운 민족에 통일열망으로  
수령님 쓰고쓰신 통일의 대강들

한생 놓지 않으신 붓  
생의 마지막날까지 놓지 않으  
신 붓  
그 붓은 력사의 갈피에 놓여있  
던가

오늘도 원수님  
마음속에 소중한 잡고계시는  
붓이어

그 붓으로 원수님 쓰시었어라  
수령님탄생 100돐을 맞는  
뜻깊은 그 4월에  
수령님업적 만대에 전해갈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수령님은 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  
었다고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하시여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닥으신것은  
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이라고  
원수님 뜨겁게 새겨놓으시었  
나니

수령님의 후더운 체온  
원수님의 손길에서 더 뜨거워  
지고  
수령님의 거룩한 통일경륜  
원수님의 뜻에서 더 굳건히  
이어지는  
통일의 붓대

수령님의 그 소중한 붓으로  
통일의 진로를 밝혀주시는  
원수님  
그 붓은 그대로  
아버이수령님의 통일위업  
출기차게 이어가시는  
원수님의 통일계주봉!

통일은 오직  
수령님의 뜻대로!  
장군님의 뜻대로!

태양절정축 열병식장에서도  
뜻깊은 새해  
2014년의 신년사에서도  
그이는 밝혀주시었어라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란  
다면  
그가 누구든 함께 나아갈것이  
라고

이것은 그이의 변함없는 의지  
그 의지를 안으시고  
겨레를 통일의 길로 이끄시는  
원수님  
언제나 통일의 진두에 계시던  
수령님과 장군님처럼  
그이는 통일의 최진두에 계신다

무도와 장재도 월내도  
관문점과 오성산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  
지는  
그 최전방중의 최전연초소들에  
서슴없이 나르신 경애하는  
원수님

밀려오는 전쟁의 구름 막아내  
시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여주신  
위대한 령장의 그 온공  
겨레의 안녕을 지켜준 그  
사랑은  
수령님과 장군님 한생 지퍼오신  
겨레사랑의 불길

수령님민족 장군님조국  
한가슴에 다 품어안으시고  
태양의 통일위업 곳곳이 이어  
가시는  
김정은 그이는  
철세의 애국자 민족의 아버지

흙모와 경모의 물결 끝없이 밀려  
오는  
여기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수령님의 모습으로  
장군님의 손길로  
원수님 안아주신 남녘과 해외  
의 동포들

그이의 인덕에 매혹되어  
그이의 인품에 끌리어  
그들이 하나같이 러친 걱정  
원수님은 그대로 김일성주석님

수령님 바라신 조국통일  
장군님 념원하신 하나로 된 조국  
그 통일강성대국을 안아오시고  
태양절 4월의 봄날  
우리 원수님 태양의 궁전에  
오시려니

오, 그날 우리의 원수님  
그리움의 꽃바구니 드리시던  
수령님께  
통일조국의 겨레가 피워올린  
통일의 꽃바구니를 삼가 드리  
시리라

환희의 봄  
감격과 격정으로 끓어번질  
그 봄날이여  
아, 아버지수령님은 정녕  
그 봄날속에  
통일의 태양으로 영원하시리라!

언제나 통일을 생각하시며

가르쳐주신 통일의 진리

주제82(1993)년 3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을 방  
문한 재미동포들을 친히 만나주시  
고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민  
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  
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  
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  
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뭉  
쳐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

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 해  
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  
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시며

주제79(1990)년 8월 1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범민족대회에 참  
가하셨던 대표들을 친히 뵈가까이  
불러주시었다.

이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대표여  
러분들은 해외에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여온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

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  
하여 하나하나 해설해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주, 평화통  
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확고  
히 견지하며 온 민족이 광범한 통  
일전선을 형성하고 굳게 뭉쳐 투쟁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에

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  
을 주시었다.

또한 통일운동의 주체는 전체 조  
선민족인것만큼 조국을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온 겨레가 통일운동  
에 떨쳐나서야 하며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  
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대단  
결의 원칙에서 굳게 뭉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이날 대표들은 명확한 통일방도로  
민족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  
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르며 조국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본사기자

《조국통일의 구성 김일성주석》

스위스단체 인터넷에 특집

태양절정축 스위스준비위  
원회가 3월 16일 스위스조  
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  
연구소조 인터넷홈페지  
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특집  
하였다.

홈페지는 《조국통일의  
구성 김일성주석》이라는 제  
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  
적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  
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  
세우시고 생의 마지막까지  
까지 조국통일위업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  
었다.

그이께서는 1948년 4월 평  
양에서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  
회의를 소집하시었다.

그이의 높이신 뜻과 열  
렬한 애국심, 숭고한 덕망  
에 매혹된 남조선의 한 인

사도 반공으로 한생을 살아  
온 자신을 뒤우치고 조국통  
일을 위한 투쟁에 나설수 있  
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의 전  
기간 수많은 조국통일제안들  
을 내놓으시었으며 그 과정  
에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홈페지는 위대한 수령님께  
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  
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  
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  
립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소  
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  
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  
는 남조선과 해외의 수많은  
동포들을 접견하시었다.  
남조선에서 큰골파해가 닳  
을 때에는 수재민들에게 많  
은 구호물자들을 보내주도록  
하시었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주석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모  
든 조선사람들은 김일성주석  
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  
이 받들어모시었다.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후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  
장으로 정립해주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  
여 두차례의 북남최고위급회  
담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  
이 발표되게 되었다.

김 일 성 주 석 과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는  
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서  
계시기에 조선은 우리 민족  
끼리의 리념밀에 반드시 통  
일될것이다.

우리 집에는 가보처  
럼 소중한 전해오는 사  
건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21년전  
인 주제82(1993)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김일성주님께서  
몸소 집의 남편(리인모)을  
찾아주시여 함께 찍어주신  
사진이다.

이 사진을 우러러볼 때면  
만민의 다함없는 축원의 인  
사를 받으셔야 할 자신의  
탄생일에 병원을 찾으시여  
남편을 만나주시던 수령님  
의 인자하신 모습이 어려오  
군 한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남편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리인모  
동무는 원수들의 온갖 고문  
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혁  
명적지조와 절개를 지켜 용  
감히 싸워 이겼다고, 조선로  
동당원의 고결한 혁명정신과  
숭고한 품모를 온 세상에 파  
시하였다고 분에 넘치는 피  
하를 주시며 자신께서 몸소  
수표하신 당원증을 수여해주  
시고 자신의 존함이 새겨져  
있는 금시계를 채워주시었  
다. 그리신 다음 남편을 앓  
히고 자신께서 그곁에 서시  
여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

수  
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못 잊습니다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혜에 목이 메어올  
라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눈  
물로 하염없이 얼굴을 적시  
던 남편의 모습이 지금도 잊  
혀지지가 않는다.

돌이켜보면 남편은 한생토  
록 조선로동당의 당원증을  
신장속에 품고 살아왔다.

남쪽에 있을 때 남편은 수  
기에서 생일을 10월 10일이  
라고 밝혔었다. 그래서 조국  
의 품에 안겼을 때 나는 생  
일이 8월 24일인데 왜 10월  
10일이라고 수기에 썼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때 남편은 어떤 절해고  
도나 독감방에 있어도 키워  
준 당을 항상 잊지 않고 당  
이 탄생한 날을 가슴에 안고  
살자는 뜻에서였다고 이야기  
하는것이였다.

지옥행 수인번호를 달았던  
여인 가슴에 뜨겁게 안겨주  
신 조선로동당 당원증, 그것  
은 정녕 정치적생명의 새로  
운 탄생을 알리는 이 세상

가장 값높은 인생증서이기도  
하였다.

수십년세월 쇠고랑을 차  
고 매없이 감행되는 뒤를  
기고문에 빠가지 랄런 가는  
팔목에 채워주신 금시계,  
그것은 정치적생명의 은인  
인 아버지의 심장에 숨결을  
맞추며 영원히 변치 말고 충  
정의 한길을 걸으라는 크나  
큰 믿음과 기대를 불변의 태  
념으로 삼아 들고도는 인생  
박동기였다.

하기에 남편은 그날부터  
어느 한순간도 사랑의 금시  
계를 벗어놓거나 붉은 당원  
증을 몸에서 떼어놓은적이  
없었다.

남편은 절세위인들의 크나  
큰 믿음과 사랑이 어린 당원  
증을 가슴에 품고 금시계의  
초침소리에 온넋을 가다듬으  
며 《우리는 수령님이 있습  
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  
아야 합니다》를 비롯한 글  
들을 집필하군 하였다.

그야말로 《숨쉬는 화  
석》, 시체 아닌 《시체》

로 관문점분리전을 넘여섰  
던 남편이 이후 14년간 행  
하수십년세월 쇠고랑을 차  
고 매없이 감행되는 뒤를  
기고문에 빠가지 랄런 가는  
팔목에 채워주신 금시계,  
그것은 정치적생명의 은인  
인 아버지의 심장에 숨결을  
맞추며 영원히 변치 말고 충  
정의 한길을 걸으라는 크나  
큰 믿음과 기대를 불변의 태  
념으로 삼아 들고도는 인생  
박동기였다.

하기에 남편은 그날부터  
어느 한순간도 사랑의 금시  
계를 벗어놓거나 붉은 당원  
증을 몸에서 떼어놓은적이  
없었다.

남편은 절세위인들의 크나  
큰 믿음과 사랑이 어린 당원  
증을 가슴에 품고 금시계의  
초침소리에 온넋을 가다듬으  
며 《우리는 수령님이 있습  
니다》, 《인생을 참되게 살  
아야 합니다》를 비롯한 글  
들을 집필하군 하였다.

장군님은 우리 가정뿐  
아니라 만민이 스승으  
로, 은인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우러르는 태양

이시다.  
이제는 남편이 떠나간지도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  
나 위인들의 사랑과 더불어  
남편은 애국렬사릉에서 오늘  
도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내가 87살의 나이에도 이  
렇게 건강하게 지내고있는것  
도, 손자, 손녀들이 모두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나라의 어엿한 일꾼으로 자  
라난것도 다 그 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나는 뜻깊은  
4월의 봄명절과 더불어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  
과 은정의 세계를 뜨겁게  
새겨주는 사진을 보며 자  
식들에게 다시금 당부하였  
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 로 이 신 경 애 하 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는것이 우리 가  
정에 돌려주신 절세위인들  
의 사랑에 천만분의 일이라  
도 보답하는 길이라고.

김순임

